

내부 통제 장치를 통해 적발하여 엄중 조치 중이며, 수사지휘권 폐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10.1.(목) TV조선, ‘친형 업체’ 사망사고 뒀던 특사경... 오늘부터 검찰 지휘 사라져 ‘통제 공백’
“이같은 사실은 내부 점검이 아닌 동료 감독관의 제보로 드러났습니다.”

2. 설명 내용

- 해당 비위는 동료 감독관의 제보가 아니라 우리부의 내부 통제 장치를 통해 적발되어, 감사 중인 사안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임
- 내부 통제 장치를 통해 적발·엄중하게 조치 중인 사안으로, 기사에서 언급된 수사지휘권 폐지 등과는 관련이 없음
- 고용노동부는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비해 ①지방관서장·부서장 중심 내부 수사 지휘체계 마련, ②수사의 공정성·객관성 확보를 위한 수사심의위원회 설치, ③현장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·훈련 강화 등 철저히 준비하고 있음
- 아울러, 감독관 대상 이해충돌 방지, 감독 절차 및 법 집행 원칙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충실하고 내실 있는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임

담당 부서	감사관 감사담당관	책임자	과 장	이경근 (044-202-7801)
		담당자	서기관	오현석 (044-202-7802)
담당 부서	안전보건감독국 중대산업재해수사과	책임자	과 장	이경제 (044-202-8950)
		담당자	사무관	이호준 (044-202-8952)
담당 부서	안전보건감독국 안전보건감독기획과	책임자	과 장	박상원 (044-202-8901)
		담당자	사무관	강승훈 (044-202-8914)